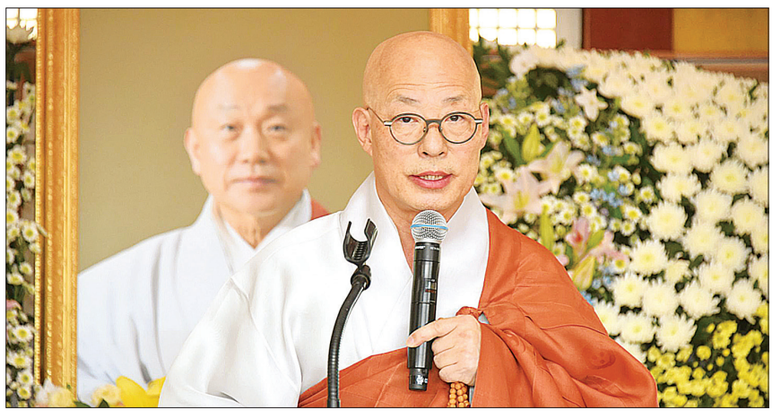
만당 스님 1주기…“포교 원력 굳건히 잇겠다”

7월 4일 영광 불갑사서 다례재
진우 스님 등 1000여 명 동참
“행동하는 행선 수행자” 회고
“전법의 씨앗 거대한 숲 될 것“

영광 불갑사=김내영 기자



취암당 만당 종사 원적 1주기를 맞아 스님의 추모다례재가 7월 4일 영광 불갑사에서 거행됐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법어를 통해 “포교 원력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것”을 다짐했다.
사진=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취암당 만당 종사의 원적 1주기를 맞아 추모다례재가 7월 4일 영광 불갑사에서 거행됐다.

10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다례재에서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만당 스님을 “이 시대에 보기 드문 행동하는 행선 수행자이자 공심을 위해 단 1분 1초도 자신을 위해 쓰지 않았던 지독한 정진력의 소유자”라고 회고했다.

진우 스님은 “스님께서는 후학 승가에게 이 시대 수행자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를 삶 자체로 보여주신 위대한 귀감이었고, 사부대중에게는 자상하고 지혜로운 포교의 스승이었다”며 “스님이 불갑사와 종단에 심어 놓은 전법의 씨앗은 거대한 숲이 돼 푸르게 빛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부대중은 스님이 남기신 거룩한 불사와 포교의 원력을 중단 없이 이어 나갈 것을 이 영단 앞에서 굳게 다짐한다”며 “아쉬움과 안타까움은 여전히 크지만, 스님과 맺은 법연과 깊은 원력을 믿기에 슬픔을 거두고 스님의 다음 걸음을 기다리고자 한다”고 애도했다.

스님들과 지역사회 인사들도 추모사를 통해 만당 스님의 수행정신과 포교 원력을 기렸다.

중앙종회의장 주경 스님은 “만당 스님은 종무행정을 맡았던 사판이 아니라 부처님 가르침에 정통하고 하화중생의 보살행을 몸소 실천한 수행자”라며 “참된 수행자는 떠난 뒤 향기가 더욱 깊어지는데, 모든 이들의 지극한 정성에 스님의 원력이 더해져 종단이 올바로 서고, 모든 중생이 평화 속에 살아가길 바란다”고 기원했다.

백양사 주지 무공 스님은 “슬픔은 남겨진 사람들의 몫”이라며 “만당 스님께서 전해주신 마음의 선물을 소중히 간직하고, 훗날 다시 만나 함께 정진하기를 바란다”고 발원했다.

이개호 국회의원은 “한국불교 발전과 문화 전승을 위해 헌신한 스님의 가르침을 깊이 새기고 그 발자취를 따라 묵묵히 나아가겠다”고 말했다.

상좌대표인 불갑사 주지 덕상 스님과 정길수 불갑사 신도회장은 만당 스님 원적 1주기에 함께해준 사부대중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덕상 스님은 “수많은 사부대중이 함께한 모습을 보니 생전 은사 스님이 대중과 지역사회에 쌓아온 복덕이 얼마나 두터웠는지 새삼 느끼게 된다”며 “앞으로도 하심하는 마음과 화합중의 정신으로 스님께서 남긴 불갑사 도량을 더욱 굳건히 지켜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만당 스님은 1964년 전남 구례에서 태어나 고려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법고시를 준비하기 위해 불갑사를 찾았다가 수산 지종 대종사와 인연이 돼 1991년 출가했다. 1992년 백양사에서 서옹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를, 1996년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했다.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 기획국장, 종교평화위원회 위원장, 제15~17대 중앙종회의원, 제17대 중앙종회 부의장 소임을 맡아 2000년대 종단 발전을 이끌었다.

2001년부터 불갑사 주지로 쇠락했던 사격을 일신시키기도 했다. 특히 백제불교를 전한 마라난타 존자의 전법 발자취를 탐사하고 고증을 거쳐 백제불교 초전성지 마라난타를 창건하고 2001년부터 불갑사에서 마라난타불교대학을 운영해 현재 22기까지 500여 명의 불자를 배출했다. 원적 전까지 제18대 중앙종회의원, 한국불교문화사업단장으로 종단 안팎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지난해 7월 4일 새벽 법랍 33년, 세수 61세의 나이로 입적했다.

“강진 피해 베네수엘라에 자비 손길을”

복지재단·동행·더프라미스
이재민 일상 회복 위한 모금



베네수엘라 강진 피해 현장 모습.
사진 제공=아름다운동행

6월 24일(현지 시각) 베네수엘라에서 발생한 강진으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발생한 가운데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도륜 스님, 이하 복지재단),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동행), 국제구호 NGO 더프라미스(이사장 묘장 스님)가 강진 피해 복구를 위한 긴급 모금을 진행한다.

베네수엘라 수도 카라카스와 라과이라주 일대를 강타한 규모 7.2와 7.5의 연쇄 강진으로 2000여 명이 숨지고 약 5만명이 실종됐다. 주택과 병원, 학교 등 건물 수만 채가 붕괴되며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이 속출했고, 주민 대부분은 임시 대피소에서 생활하고 있다. 식수와 식료품 등 기본적인 구호 물자가 부족한 데다 의료 체계도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해 사회의 긴급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복지재단**은 8월 2일까지 모금 캠페인을 실시한다. 모금액은 긴급 구호 물품, 식수·식료품, 의료·생계 지원 등 이재민의 일상 회복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2-6334-2208, 하나 271-910006-64104

동행은 7월 31일까지 모연에 나서며 △긴급 식량 및 식수 보급 △응급의료물품·의약품·생필품·위생용품 지원 △피해 지역 복구 등을 지원한다. 02-737-9595, 농협 301-0366-4563-11·국민 023501-04-263588

더프라미스는 긴급 모금과 함께 현장 상황에 따라 필요한 지원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1단계로 현지 피해 주민들을 돕고 있는 화이트헬멧, 이스라에이드 등 협력 단체의 구호 활동을 지원한다. 2단계에는 구호 팀을 직접 파견하고, 구호 기관의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를 발굴해 심리 치료 등 돌봄 활동을 펼친다. 3단계로는 이재민의 일상 회복과 공동체 재건을 위한 지원 사업도 이어갈 계획이다. 02-735-3119, 신한 100-035-864047

이현희 기자

임중연 교수 “AI·로봇 스님, 수행·포교 돕는 ‘방편’”

조계종연구소 등 7월 3일
‘AI 혁명과 불교’ 학술대회



AI 로봇 스님 ‘혜안’을 개발한 임중연 동국대 기계로봇에너지공학과 교수〈사진〉가 “AI와 로봇 스님은 인간을 대체하는 존재가 아니라 수행과 포교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하나의 방편”이라고 강조했다.

임 교수는 7월 3일 서울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국제회의장에서 조계종연구소(소장 원철 스님)·4차산업혁명융합법학회·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이 공동 개최한 ‘AI 혁명과 불교’ 학술세미나에서 ‘혜안 AI·로봇 스님의 소개’를 주제로 발제하며 이같이 밝혔다.

임 교수는 먼저 ‘혜안’ 개발 배경에 대해 “사찰 현장에서는 안내와 응대를 담당할 인력이 부족하고, 사회적으로는 우울과 불안, 외로움 등 정서적 고립을 겪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로봇이 만들어진다면 MZ세대 포교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임 교수에 따르면 기존 사찰에서는 정서적 교감이 어려운 키오스크와 교리의 정확성 및 환각 문제를 안고 있는 범용 챗봇 등이 사용돼 불교적 특수성과 현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임 교수가 이끄는 AI·안전로봇 혁신연구센터는 인간-로봇 상호작용(HRI), 로봇 센서 소자, 로봇 안전 시스템 등을 연구해 인터넷 연결 없이도 작동하고 환각 가능성을 최소화한 불교 특화 AI 로봇 ‘혜안’을 개발했다.

임 교수는 “혜안은 듣고, 헤아리고, 응답하는 기술을 바탕으로 상호작용 역량을 강화하고, 선명상 등 마음돌봄 콘텐츠를 접목해 독거노인과 1인 청년, 자폐 청소년 등 정서적 고립 계층을 위한 불교 기반 돌봄 로봇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업그레이드를 거쳐 내년 4월 불교박람회에서 선보일 예정”이라고 말했다. 다만 “AI의 교리 답변은 정확성과 검증 체계를 지속적으로 갖춰 나가야겠지만 법문과 수행 지도, 종교적 판단은 인간 스님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 나선 AI부디즘연구소장 보일 스님은 “‘혜안’의 미래는 ‘얼마나 더 많이 할 수 있는가’가 아니라 ‘무엇을 끝내 인간 승가의 몫으로 남길 것인가’를 분명히 하는 데 달려 있다”며 “‘혜안’은 ‘권위의 대체’가 아니라 ‘관계의 촉발’ 역할을 해야 한다. 사찰을 처음 찾은 이들에게 문을 열어주고, 더 깊은 수행과 법문이 필요한 순간 인간 스님과 승가 공동체로 연결하는 가교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김내영 기자

아름다운동행, 튀르키예에 음수대 기증

7월 4일, 대지진 피해 회복 지원
교육·생활 인프라 구축에도 힘써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이 음수대를 살피고 있다.

조계종 공익법인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진우 스님, 이하 동행)이 2023년 발생한 대지진 피해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튀르키예를 찾아 식수 제공과 교육·자립 지원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일상 회복을 도왔다.

동행 상임이사 법오 스님은 7월 4일 튀르키예 하타이주 이스켄데룬시(İskenderun)를 방문해 ‘아름다운동행 공용 음수대’ 기증식을 진행했다.

동행에 따르면 튀르키예는 대지진 이후 주거·보건 등 핵심 기반 시설 복구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으며, 특히 상수도 오염과 석회질 유입 등으로 주민들은 위험 식수에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이에 주민들에게 위생적인 식수를 제공하고자 이번 기증식을 마련했다. 음수대는 현지 카이마캄 관청의 제안으로 도시 공원에 설치됐으며, 정수·냉각 기능을 갖추고 있다.

이스켄데룬 위스크달 컨테이너 마을에서는 이재민들의 생활 안정화를 위한 지원 사업도 펼쳐졌다. 동행은 관할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를 초청해 재봉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며 주민들의 기술 습득과 자립 기반을 도왔다. 학생들을 위해 태블릿 PC를 갖춘 공부방과 도서관 조성에도 힘을 보탰다.

이현희 기자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창립 20주년 기념법회 및 비전선포식

20 Anniversary
생명나눔 20년,
생명의 꽃을 피우다

생명의 소중함을 나누고 희망을 전하는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가 창립 20주년을 맞이하였습니다.
2006년 7월 21일 창립 이래 지난 20년 동안 장기기증희망등록, 자살예방, 사전연명의료의향등록사업, 난치병 환우돕기 등
생명존중 문화 확산 운동을 펼치며 많은 분들과 함께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천해 왔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관심과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창립 20주년을 기념하는 뜻깊은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생명 나눔의 발자취를 돌아보고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하시어 축원과 격려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존중과 나눔의 정신이 더욱 널리 퍼져나갈 수 있도록 귀한 걸음으로 함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본부장 심 산 합장

2026. 7. 21 (화) 14:00 | 홍법사

주최 (사)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문의 051) 853-0429
후원 부산은행 097-01-012720-8 예금주 : (사)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

보건복지부지정 장기이식등록기관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부산지역본부